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정기태



엘레미나 참빗으로 머리를 곱게 단장하는 꼬부랑 할머니의 모습은 아름답다. 허웃웃한 긴 머리를 정성스레 빗질하는 손길엔 단아한 기쁨이 느껴진다. 주름지고 쪼그라진 얼굴엔 모진 풍상(風霜)이 켜켜이 각인돼 있지만, 나지막한 목소리며 그윽한 눈길엔 평온함이 충만하다. 굵은 돋보기를 쓰고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백발의 노신사로 보기 좋다. 그들에게선, 은은한 향기로 여운을 남기는 동양란의 청초함을 본다.

대선정국, 곳곳에 쫄붙건

광주시 고위 공무원 출신인 N씨. 그는 철십 줄이 넘는 지금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않았다. 한 때 기업체에 몸을 담은 적도 있었지만 '아니다 싫은' 생각이 들자 훌훌 털고 떠났다. 정년퇴임 후 유관 단체장을 두어 차례 맡았으나 관공비는 고스란히 남겨두고 자비(自費)로 썼다. 곁에서 지켜본 한 후배는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처신할 수 있다는 게 연구대상"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그를 만날 때마다 "저 어른 참 곱게 늙는다"는 생각을 한다. 부러움과 존경의 마음은 그런데서 나온다.

또 다른 공무원 출신 A씨. 그는 현직에

곱게 늙기

있을 때 깔끔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부하 직원들을 달랠지 않고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했다. 업체와 관련된 잡음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정국의 회오리 속에서 '좋았던' 인상이 망가졌다. 특정 정당에 '느닷없이'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지인들도 "어쩐지 곱게 늙지 못할 것 같다"고 수군거렸다. 오랜 기대가 한 순간 실망으로 변했기 때문일 게다.

공무원이 퇴임 후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공직에서 익힌 지

식과 경험을 현실정치에 접목시킬 수 있다면, 지역과 국가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논공행상을 바라는 속셈에서 '뒤늦게' 합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형적인 기회주의 행태이기 때문이다.

유력 후보의 캠프를 쫓아다니는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는 또 어떤가. 정치인에게 빌붙는 그들에게엔 부와 권직만 눈에 밟힐 것이다. 하여, 고려대 현택수 교수(사회학과)는 '삼살이 지식인'이라고 폄하(貶下)한다.

<폴리페서들은 어쭙잖은 지식에 파는

학교로 돌아간다. 뻔뻔스럽게도, 그들은 다음번 또 정치권을 기웃거리길 것이다. 어찌어찌 자리를 꿰찼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뒷문'을 열어줬다면 교도소 담벼락을 걷기 십상이다. 까막 잘못하면 담장 안으로 떨어지거나 다리가 부러진다. '국립호텔'을 나올 땐,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것이다. 존재가 잊혀져 기억 지편으로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허허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늘그막에야 깨달을 터이다.

나이 들수록 처신 신중해야

추하지 않게 늙는다는 건 큰 복일 것이다. 그렇다면, 곱게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물러나야 할 때 두말없이 떠나야 한다. 여기저기 '뽕짜거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낫살을 먹을수록 주변을 돌리라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전부 옳은 양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

허망한 지위나 작은 돈에 집착하면 "탐욕스럽다"는 욕지거리를 받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모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가락질은 더 잦아질 것이다.

당신은 지금 곱게 늙고 있는지, 한번쯤 고민해볼 일이다. /사회부장

meonsan@kwangju.co.kr

사이비 교수들이다. 급조된 짧은 지식을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며 매스미디어에서 연변을 과시하는 '패스트 브레인'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권이 약간의 손짓만 해도 금세 꼬리를 치며 달려가는 지식인들이다. 그러면서 정책참모나 자문단에 들어오면 '참고초려'를 받은 지식인처럼 대우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경제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인 경제학자이거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사회학자가 되곤 한다. 선거에 지면, '폴리페서'는 슬그머니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편칼럼

김병인



17대 대선에 30일도 채 남지 않았고, 후보 등록일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현재 민주 개혁 세력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후보 단일화 문제이다. 범여권 후보들의 전체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후보단일화' 외에 그 어떤 것도 우 선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 개혁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서이다. '후보 단일화'는 누구를 지지해야 할 지 방향 해야 했던 지지 세력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대통령 민주선당과 민주당의 당 대 탈 통합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모두 대

과거의 잘못은 있다. 열린우리당은 분당과 국정 실패의 책임이 있고 민주당은 밀실 공천 출세우기등 당내 개혁의 문제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이제는 모두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지분 다름으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은 좋지 않은 과거의 모습만 생각나게 해 줄 뿐이다. 다시 협상에 나서서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어야 한다. 문국현 후보도 가치 논쟁에 몰두하기보다는 정치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정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지 독단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업이 아니다. 정치 현실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부패수구세력의 집권

민주개혁 세력 희망이 있다

등단결이라는 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자 싶다.

'이명박 대세론'으로 흘러가던 대선 판은 이날 들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무소속 출마와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귀국으로 이 후보의 대세론에 불안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민주 개혁 세력이 총 결집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낸다면 보다 좋은 대선 구도와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절호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는 문 지분 협상이 통합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뿌리 깊은 분열주의와 소아적 이해 다름에 빠져서 지리멸렬한 상태로 대선을 치르면 총선보다 불보듯 뻔한 일이다. '후보 단일화'마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합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뿌리 깊은 분열주의와 소아적 이해 다름에 빠져서 지리멸렬한 상태로 대선을 치르면 총선보다 불보듯 뻔한 일이다. '후보 단일화'마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합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뿌리 깊은 분열주의와 소아적 이해 다름에 빠져서 지리멸렬한 상태로 대선을 치르면 총선보다 불보듯 뻔한 일이다.

후배 보수 세력의 집권을 막으려만 스스로 변하고 양보와 이해가 있어야 한다. 분명히 민주 개혁 세력 모두에게

을 막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 기존의 정당들도 모든 기득권을 포기 하는 자세를 보여서 새로운 세력들에게 입지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진검 승부가 될 것이다. 먼저 국민적 관심이 대선에 집중되면서 본격적인 후보 검증이 시작될 것이다. 후보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 후보들의 경제, 정치, 교육, 복지, 통일정책 등에 대한 논쟁과 검증이 시작될 것이다. 민주 개혁 세력에게는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지도자의 자질과 정책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단일화 된 후보자는 상대당 후보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국가의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겸허하게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21세기 미래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참신한 정책·공약의 선거야말로 민주 개혁 세력에게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서강정보대 교수·2006년 4월 수상자>

은편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자에 수여하는 '은편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한약재 품질·안전검사 강화 급하다

시중 약재상에서 한약재를 사다가 가정에서 달여 먹는 시민들이 많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가 5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한약재도 일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적합한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만 유통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약재 9가지에 대해서만 공평이 독소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는데 검사 대상 품목도 늘리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시는 강화할수록 좋을 것이다. ▲양창숙·광주시 남구 구소동

기고

오진수



네 번째 혁신도시 기공식이 상생의 가치를 내걸고 나주에서 개최되었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짧은 기간 안에 토지보상률 60%를 넘기며 상생의 사례를 보여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시행사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이제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해야한다. 지금까지는 너도 나도 국가정책이나 도시계획, 또는 건축계획의 원론(原論)을 이야기 하였다면, 이제는 각론(各論)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최고의 명품도시', '다양한 지원책', '혁신의 노력'으로'와 같은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표현만이 난무해서는 안 될 때이다.

도시 내 체육·문화시설도 이전기관별로 중복 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관별 사육 설계가 시작되기에 이전기관의 자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정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수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등학교 문제도 그렇다. '특목고'인지 '자립형 사립고'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교육정책당국과 지자체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여 제시해 주어야 한다.

셋째, 공간만 확보해 놓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를 채워넣기 위해 어떤 기업과 연구소 또는 학교를 유치할 것인지 이제는 실명이 담긴 리스트를 작

혁신도시, 이제는 각론을 논하자

실시계획이 확정되고 혁신도시 조성 공사가 착공된 이 시점에서, 이전 대상 기관의 실무자로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속여부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소신있는 반박과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하며 이것을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선택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한다.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전대상 기관 중에는 직장 내 영·유아 보육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은데, 무연고지로 내려가야 하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어떻게 육아시설을 지원할 것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혁신

성하여 혁신도시를 유치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뛰어야 할 것이다. 지방에 있는 대학만이 아닌 서울의 유수 대학의 분교도 추진해 볼만하다.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학연 유치가 공공기관의 이전추진 일정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전기관의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조기에 이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이전 시기에 맞추어 주거용 건물들과 학교,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들도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착공 시기를 조율하고 독려해야 할 것이다.

기공식이 있기까지 모두가 수고하였지만, 특히 각 지자체의 혁신도시건설 지원단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들은 지원단의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동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염려도 크고 기대 또한 큰 것이다. <한국전력거래소 신사업추진팀장>

청소년 여드름 치료도 보험 적용해야

화창 시절 얼굴에 가득 피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공부도 해야 되는 시기에 시간과 돈을 들여 피부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행함을 겪어야 한다. 특히 외모 뿐만 아니라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예전처럼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보다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청소년들과 성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여드름은 분명히 피부병이다. 심상성화창

이라(acne vulgaris)는 질병 범주에 들어가는 피부병이지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약값의 전부를 내야 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영국 등에서는 만 16세 미만까지 여드름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자들이 많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여드름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다. <이승열·목포시 옥암동

시설

'F1 특별법' 끝내 무산 정치권 각성해야

1년 이상 끌어 온 'F1(포뮬러원)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2010년 11월 말로 예정된 F1 대회 추진이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F1 특별법은 20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이번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전남도로서는 당장 자본금 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등 대회 개최 자체마저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착공해야 하는 경주장 건설비 2천300억원 조달과 30~36개월로 추정되는 절대공기를 맞추는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 F1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해 왔다. 이는 F1 대회가 전남지역 최대 현안인 J프로젝트 선도사업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F1 특별법이 무산돼 J프로젝트 역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치권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 등 일부 정치권이 F1 특별법을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라며 발목을 잡는 바람에 국회통과가 무산됐다고 한다. 하지만, F1 특별법을 발의한 정당은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어제 말과 오늘 행동이 다르다면 공당(公黨)이라 할 수 없다. 약속을 지키는 일은 정치인의 생명이니 다름없다. 식언(食言)을 일삼는 정치인과 정당을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F1 특별법 통과는 무산됐지만 사업추진에 계속돼야 한다. F1 특별법이 무산됨에 따라 F1 사업은 기업도시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근여 추진될 예정이다. 그렇다 해도 전남도는 F1 대회가 예정대로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상 최고에 양극화 심화된 사교육비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올 3·4분기 도시가구의 월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이 15만2천54원으로 사교육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 지난 2003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해온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무색해지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

사교육비 상승세는 매우 가파르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지난 2003년 3·4분기에 비해 18.2% 증가했지만 사교육비는 무려 32.7%나 올랐다.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사교육비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소득상위 가구 20%와 하위 20%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5.7배에 달했다. 가구당 소비지출 격차 3.37배보다 높은 사교육비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보다 더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 양극화는 교육기회의 불균

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개천에서 용 나온다'는 속담은 옛말이 됐지만 부(富)의 세습에 이어 학력까지 세습되는 사회가 정상일 수는 없다. 교육 기회까지 차별 받는 저소득층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교육비 급증이나 양극화는 정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경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통계에서 드러나듯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으로 혼란을 부추겨왔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 해법은 공교육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말만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시길 바란다.

無等鼓

몇 년 전만해도 전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 가을이 되면 숲골들은 으레 퇴근길에 입맛을 다시며 전어횟집을 찾곤 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부터 양식 전어 출하로 가격이 폭락, 인기가 다소 시들해진 느낌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전어는 일반 서민들이 즐겨 찾던 고기였다.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머느리가 다시 돌아온다. 가을 전어 대가리엔 참깨가 서말, 볼 도다리 가을 전어' 등 속담은 서민 대중이 얼마나 즐겨 찾았는지를 반증해주고도 남는다.

조선 실학자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에서 "기름지고 맛이 좋아 사는 이가 값을 따지지 않으니 돈고기(錢魚)라 한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 모양이 화살 같다고 해 전어(箭魚)로 적었다.

과일이 제철에 먹어야 맛있는 것처럼 전어도 가을에 먹어야 제맛이 난다. 전어는 봄에 알을 낳아 부화한 후 성장과정을 거쳐 가을이면 20cm 정도로 자란다. 이 때를 전후해 지방질이 봄, 겨울에

비해 3배 가량 많아지고 뼈도 부드러워진다. 봄에 살코기 100g당 2g이던 지방이 가을이면 6g으로 올라간다. 그것도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다. 구이나 회로 먹는 전어는 비교적 값이 싸고 맛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즐겨찾는 음식이 되었다.

올해는 전어 어장이 예년보다 빨리 형성되고 대량으로 잡히는 데다 양식 전어 출하량이 늘어 값이 크게 내렸다. 또 양식 전어 재고량도 넘쳐 대규모 폐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판매마저 막혀 어민들이 울상이라 한다.

이에 전남도가 분청 및 시·군 직원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양식 전어 사주지 운동(魚)라 한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대대적인 홍보에 결여해 교육청에 각급 학교 식재료로 써줄 것도 요청했다.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우리 어민들이 '과잉생산 폐해'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앞선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